

스페인 식민지배하 필리핀의 토착 지배계급의 형성 과정

박승우*

I. 서론: 문제 제기와 분석틀에 관한 논의

현대 필리핀의 역사에서 토착 지배계급은 다른 어떤 탈식민지 사회와 비교해 보아도 정치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우리가 전후 필리핀의 정치체제를 '약탈의 정치'(politics of plunder)(Aquino 1987)라든가 가산제(patrimonialism)적 국가(Hutchcroft 1991)라는 용어로 특징짓거나 전후 필리핀의 국가기구를 '약한 국가'(Wolters 1984) 또는 특수이익에 의해 침투 또는 포위된 국가(besieged state)(Park 1998)로 규정할 때, 우리는 소위 과두 지배집단(oligarchs)이라고 불리는 일단의 동질적인 지배엘리트들을 핵심으로 하는 필리핀의 토착 지배계급이 논의의 중심이 되고 있음을 알고 있다. 또한 필리핀의 경제체제의 특징을 일컬을 때, 정실자본주의(crony capitalism)니, 의사(擬似)자본주의(ersatz capitalism)니(Yoshihara 1988), 또는 지대추구(rent-seeking) 자본주의니 하는 개념을 적용하는 것도 토착 지배계급의 역할과 비중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이다. 이처럼 필리핀의 정치·경제체제를 설명할 때 가장 중심 되는 사회적 요소가 바로 토착의 필리핀인 지배계급이다.

* 영남대학교 문과대학 사회과학부 부교수. swpark@yu.a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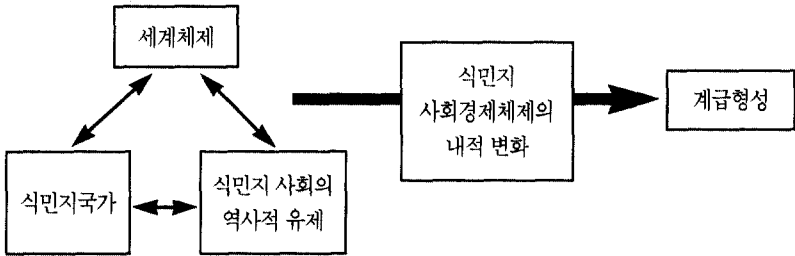
본 연구는 이러한 토착 지배계급의 토대가 스페인의 식민지 지배 기간 동안에 어떤 과정을 통해 형성되어 왔는가, 그리고 식민지의 역사를 가진 다른 국가들과 달리 필리핀에서의 어떤 사회경제적 특수성이 필리핀 특유의 강력하고 동질적인 지배계급을 낳게 되었는가를 추적해 보고자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본 논문은 오늘날 필리핀의 정치경제적 지배구조와 국가체제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자료와 논의를 제공하는 데 나름대로 기여할 수 있으리라 본다. 본 논문이 연구 대상으로 하는 시기는 16세기 중엽 스페인의 식민지배가 시작된 시점부터 1898년 스페인의 식민지배가 끝나는 시점까지 약 300여 년 간의 기간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 스페인 식민지 시대를 18세기말을 기점으로 전기와 후기로 나누어 다루도록 한다.

본 연구가 기초로 하는 분석들은 다음과 같다. 우리는 어떤 사회의 계급형성 과정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세 가지 중요한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그 첫째는 분석 대상이 되는 특정 사회의 외부에서 작동하는 힘이다. 이는 '세계체제(world-system)로부터의 영향력'으로 개념화할 수 있겠는데, 본 연구에서는 식민본국인 스페인을 포함하는 유럽과 북미의 선진 자본주의국가들을 그 중심부(core)로 하고 필리핀이라는 식민지 사회를 그 주변부(periphery)(또는 외부지역(external arena))로 하여 하나의 동심원적 구조를 이루는 특정 시대의 특정의 '세계체제' 또는 '세계경제체제'가 그 대상이다.¹⁾ 둘째는 국가(state)의 역할이다. 본 연구의 경우 이는 기본적으로 식민지국가(colonial state)가 그 대상이 되겠다. 우리는 식민지국가의 성

1) 여기서 '세계체제(world-system) 또는 '세계경제체제(world-economy)라는 용어는 19세기 이후에나 적용되는 '세계 전체를 포괄하는 전지구적(global) 체제'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월러스타인이 자신의 저작 『근대세계체제 1, 2권』에서 '유럽중심의 세계경제체제'(European world-economy)라고 했을 때와 같은 의미로 쓰인다(Wallerstein 1974, 1980, 특히 1974: 301-2 참조). 즉, 그 자체로서 하나의 '독자적이고 완결된 경제과정'이 이루어지는 '세계적' 정치경제체제라는 뜻으로 보면 되겠다('세계체제'의 개념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박승우 외(1995) 참조할 것).

격, 구조, 구성 및 그 정책이나 태도 등이 식민지사회의 계급관계구조의 변화와 새로운 계급의 형성 등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는 해당 식민지사회의 사회경제체제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다. 이는 그 사회에서 과거로부터 이어져온 역사적 유제(遺制)에 기인하는 바 큰데, 이러한 역사적 요소들이 당대의 여러 가지 내적·외적 요소의 영향으로 변화를 거듭하면서, 계급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내적·사회경제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본다. 식민지 필리핀에서도 이들 세 가지 요소가 서로 상호연관되어 작용하면서 스페인 식민지 기간 중 필리핀의 토착 지배계급의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이를 도표로 나타내 보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계급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제 요인



본 연구의 이러한 분석들과 같은 입장을 취하거나 또는 유사한 분석들을 사용하여 다른 역사적 사례들을 연구한 기존의 연구성과는 상당히 많은 편이다. 예컨대, 월러스타인(Wallerstein 1974: 67)같은 이는 어떤 특정 사회의 사회계급이나 종족·민족집단의 형성은 그 사회를 둘러싼 세계체제 전체의 발전과정이라는 외적 맥락과 해당 국가체제의 형성과정이라는 내적 맥락을 모두 고려하지 않고서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입장을 취하는 사회발전론 이론가들은 꽤 많다. 카르도수(Cardoso et al. 1979), 에반스(Evans 1979), 록스보로우(Roxborough 1979) 등은 모두 제 3세계의 사회발전을 분석함에 있어 국가, 국내자본, 계급 등 내적 변수와 해외자본 등 세계체

제로부터의 외적 변수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구해근(Koo 1984, 1987)의 일련의 연구도 본 연구와 유사한 분석틀을 사용하고 있다. 그는 제 3세계 사회의 자본축적과 사회경제적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에 영향을 미치는 세 가지 요소, 즉 세계경제체제, 주변부 자본주의 국가기구, 그리고 국내 계급구조와 계급투쟁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역동적 과정을 모두 함께 고려하는 분석틀로서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II. 스페인 식민지배 전기: 16세기 중엽부터 18세기 말까지

333년 간의 스페인 식민지배 기간(1565~1898)은 분석의 목적에 따라 여러 단계로 나눌 수 있지만, 이 논문에서는 필리핀 도착 지배계급의 형성과 관련하여 대략 1800년을 기점으로 크게 두 시기로 나누어 분석한다. 즉, 그 전기는 16세기 중엽부터 18세기말까지 약 200여 년 동안의 기간이고, 후기는 19세기의 약 100년 동안의 기간이다. 이 장에서 다룰 스페인 식민지배 전기는 필리핀에서 도착 지배계급의 형성을 위한 기초가 형성되던 시기이고, 다음 장에서 다룰 후기는 이들 도착 지배계급의 경제적 역량이 공고화되면서 하나의 지배계급으로 제 자리를 잡게되는 시기이다.

1. 스페인의 식민지 세계체제와 그 영향

1) 스페인 본국과 필리핀의 관계 : Two oceans away

이 시기 필리핀에서의 도착 지배계급 형성의 초기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필리핀을 포함하는 식민지 세계체제—월러스타인의 개념을 차용하자면 ‘스페인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경제체제’(Hispanic world-economy) 또는 ‘스페인 해상제국’(Spanish Seaborne Empire)(Parry 1966)—의 성격과 그 체제 내에서의 중심부 스페인과 식민지 필리핀 간의 관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²⁾ 스페인

본국과 식민지 필리핀 간의 관계를 가장 잘 나타내 주는 표현은 “two oceans away”라는 말이다. 이는 지리적으로 스페인과 필리핀이 두 개의 대양(대서양과 태평양)을 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사회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도 스페인과 필리핀의 거리가 매우 멀다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다. 이는 같은 기간 동안의 스페인본국과 신대륙의 스페인 식민지 간의 밀접했던 관계와 비교해 보면 극명하게 드러나는 사실이다.

스페인이 필리핀에 대하여 어느 정도나마 지배권을 확립한 것은 이보다 1세기나 더 지난 뒤의 일이지만,³⁾ 일반적으로 1565년 스페인 원정대가 세부에 자신들의 영구 정착지를 건설한 것을 스페인 지배의 공식적 기점으로 본다. 이때부터 시작된 스페인의 필리핀에 대한 소위 ‘정복’(conquista) 사업은 17세기 말 루손과 비사야의 주요 지역에서 전통적인 바랑가이(barangay) 체제가 와해되고 이것이 푸에블로(pueblo) 식민지배 체제로 완전히 전환되면서 어느 정도 마무리된다.

한편 스페인은 1492년 콜럼버스의 원정대가 에스파뇰라 섬에 처음으로 식민지를 건설한 것을 시발점으로 하여 신대륙 여러 곳에 자국의 식민지를 건설하였다. 16세기 말에는 북쪽으로 캘리포니아와 뉴멕시코 지역에서부터 남쪽으로 칠레에 이르는 거대한 식민지 제국을 건설하게 된다. 스페인은 정복 과정에서 멕시코와 중앙아메리카 지역에는 누스페인(누에바에스파냐) 부왕령

2) 본 장에서 다루는 시기—16세기 중엽부터 18세기 말—에 필리핀에 영향을 미치는 ‘세계체제’는 바로 ‘스페인 중심의 세계체제’가 되겠다. 비록 17-18세기에 들어서 스페인은 중심부로서의 국가역량이 소진되긴 하였으나(월러스타인(Wallerstein 1980)은 이 시기 스페인이 반(半)주변부로 전락했다고 평가한다) 식민지 필리핀의 관점에서 보자면 18세기 말까지 스페인은 여전히 가장 중요한 중심부 국가였다.

3) 이것도 루손과 비사야 제도(Visayas)의 일부 지역에 한해서 그러하다. 1700년에 이르러서도 많은 내륙 산간 지역과 섬들은 실질적으로는 스페인의 지배하에 들어가지 않았다. 스페인은 결국 식민지 기간 내내 필리핀 전 지역에 대한 완전한 식민지배 체제는 확립하지 못하였으며, 민다나오나 술루(Sulu) 등 일부 지역은 끝내 스페인의 지배체제 내로 통합되지 않았다.

(1535)을, 남아메리카에는 페루 부왕령을 설치(1544)하여 본격적인 식민지 경영에 나서게 된다. 스페인인들은 멕시코와 페루 등지에서 금광과 은광을 대규모로 개발하였으며, 식민지 전역에서 사탕수수, 코코아, 담배, 밀, 올리브 등 농산물을 재배하고 목축업을 발전시키는 등 체계적인 식민지 경영을 수행하였던 것이다(민만식 외 1993: 50-57; 이전 1994: 49-57). 금은과 각종 농산물이 활발히 교역되던 스페인과 신대륙의 식민지 간의 관계와는 대조적으로, (스페인 본국과 신대륙의 식민지를 포함하는) '스페인 중심의 세계체제'와 필리핀의 관계는 갈래은 무역에 의해 실낱처럼 연결되어 있었을 뿐이다.

18세기 말까지 스페인에게 있어서 필리핀은 마닐라-아카폴코(Acapulco)간 갈래은 무역을 제외하고는 그 경제적 가치가 별로 없는 땅이었다. 스페인은 해외 식민지 경영에 동원된 인적·물적 자원의 대부분을 신대륙의 식민지에 투입하였다. 반면에 같은 기간동안 필리핀에 건너와서 정착한 스페인 본국인(peninsulares)들의 절대적인 수도 적었을 뿐 아니라, 필리핀 식민지배에 투입된 재정적·행정적 자원의 수준도 뉴스페인이나 페루와 비교하면 월등히 낮았던 것이다. 그래서 아메리카 식민지에서 이미 16세기부터 플랜테이션 농업이 발달하고 금광과 은광이 개발되는 등 식민지경제가 활발하게 발전하였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필리핀의 식민지 경영은 매우 느린 속도로 그리고 조방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이다.

스페인의 식민지 세계체제는 비록 17세기 초 네덜란드와 영국의 부상을 계기로 서서히 쇠퇴하여 갔지만, 1810년대의 나폴레옹 전쟁까지는 그 명맥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이 '스페인 중심의 세계체제'에서 중심부는 스페인, 주변부는 아메리카 대륙의 스페인 식민지였던 반면에, 필리핀은 이 체제의 외부지역(external arena)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⁴⁾ 미국이 20세기초에 필리핀을 획득한

4) 월러스타인에 의하면 16세기에서 18세기 중엽까지의 시기에 필리핀을 포함한 아시아 대부분의 지역은 '유럽중심의 세계경제체제(European world-economy)'에 포함되지 않는 '외부지역'에 속한다(Wallerstein 1974, 1980). 그는 자신의 저작 한 곳에서는 필리핀이 이 '세계체제'에 속하는 것처럼 서술하고 있으나(1974: 68), 다른 대부분의 곳에서의 그의 전반

것이 정교한 사전 계획과 의도적인 식민지정복 정책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던 것처럼 스페인이 필리핀을 획득한 것도 하나의 '우연의 산물'이었을 뿐이다. 그리하여 미국이 필리핀의 식민지배 초기부터 필리핀을 놓고 이를 계속 점유할 것인가 아니면 독립을 허용할 것인가를 고민했던 것과 유사하게, 스페인 또한 필리핀을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집약적으로 경영하려는 의도는 갖고 있지 않았던 것이며, 식민지배에 임하는 이러한 소극적 태도는 18세기 말까지 계속되었다.

2) 갈레온 무역

'마닐라 갈레온'(Manila Galleon)이라 통칭되는 필리핀을 중심으로 하는 스페인의 갈레온 무역은 1570년대 후반 시작되어 19세기 초까지 계속된다.⁵⁾ 이는 중국 등 아시아 각국과 필리핀, 그리고 스페인령 멕시코를 잇는 삼각무역의 형태를 띠는데, 주로 아모이(Amoy) 출신의 중국인 상인들이 아시아 각 지역에서 도자기, 비단, 향신료 등의 물품을 마닐라로 싣고 오면 이를 스페인 상인들이 다시 갈레온선으로 옮겨 멕시코 서부 해안의 아카풀코로 싣고 간다. 돌아오는 갈레온은 멕시코, 페루 등에서 생산 또는 제조된 은이나 은화를 싣고 오게 된다(Corpuz 1997: 39-40; Lyon 1990; Schurz 1959).

갈레온 무역은 필리핀의 스페인인들에게 엄청난 이윤을 남겼다. 식민지 필리핀의 최고 법령이라 할 수 있는 레코필라시온(Recopilacion)에 의거하여 필리핀에 거주하는 스페인인들에게만 갈레온 무역에 참가할 수 있는 독점적인

적인 논의를 자세히 들여다 보면 필리핀은 이 시기에 '외부지역'에 속하는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예컨대 1974: 330, 335-36; 1980: 8, 129-75, 273 이하). '주변부'는 중심부를 위해 곡물 등 대중소비재를 생산함으로써 그 체제 전체에 필수적인 구성요소가 되는 지역인 반면에, '외부지역'은 금은 등 귀금속과 향신료 등 사치성 소비재를 제공하며 체제 전체와 유기적으로 통합되어 있지 않는 지역이다(Wallerstein 1974: 301-2).

5) 마닐라 갈레온은 17세기에 그 전성기를 누렸으나, 18세기 중엽부터는 급격히 쇠퇴하였으며 공식적으로 폐지된 것은 1813년의 일이다.

권한이 주어졌으며,⁶⁾ 스페인 본국이나 신대륙의 식민지에 거주하는 스페인인들은 법적으로 갈레온 무역에 참여할 수 없었다. 매년 두 대의 갈레온선이 멕시코로 떠났는데, 마닐라에서 아카풀코로 가는 갈레온선에 선적되는 화물의 가치는 법적으로 25만 페소를 넘을 수 없었으며, 한편 이를 팔고 돌아오는 배에 싣고 오는 화물도 50만 페소를 넘을 수 없었다고 한다(Corpuz 1997: 39-40). 갈레온선이 태평양의 거센 파고, 해적의 위협, 태풍 등의 위험을 무릅쓰고 떠났던 것인 만큼 이 배에는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화물을 적재했으리라 추측이 되며, 이렇게 보면 대략 두 배에 가까운 수지맞는 장사를 했던 셈이다(Lyon 1990). 이런 이유로 하여 필리핀의 스페인인들에게 갈레온 무역은 생명선이요, 젖줄이었다. 필리핀의 경제사가인 코르푸스(Corpuz 1997: 40)의 표현을 빌면, 마닐라의 스페인인들은 일년 중 2개월만 이 무역에 신경 쓰고(갈레온선이 해적에 약탈당하거나 난파되지 않았을 경우) 나머지 10개월은 유유자적하게 신사(紳士)로서의 여유 있는 생활을 즐길 수 있었다는 것이다.

요약하자면, 스페인 식민지 세계체제 내에서의 필리핀의 지정학적 위치가 취약하고 그 경제적 비중이 미약하다보니 식민지배 초기부터 스페인의 필리핀에 대한 적극적이고 집약적인 경영 의지가 부족하였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필리핀이 주는 경제적 기회구조가 그리 긍정적이지 못했던 이유로 필리핀에 이주하여 식민지 경제활동에 참여하려는 스페인인들의 절대적인 수도 적었다. 또한 갈레온 무역으로부터 손쉽게 획득할 수 있었던 엄청난 경제적 이득은 필리핀내 스페인인들의 동기부여 구조를 왜곡시켜, 이들이 갈레온 무역 이외의 식민지 경제활동에 눈을 돌리지 못하게 만들었다. 이들 스페인인들은 장기적인 의도와 계획을 가지고 의욕적으로 식민지 경제 건설에 투자하고 참여하는 대신, 단기적인 투기의 성격을 가진 갈레온 무역에만 몰두하였던 것이다. 이는 역사상의 다른 식민지 체제와 비교해 보면 그 차이가 더 뚜렷해진다.

6) 레코필라시온은 'Recopilacin de Leyes de los Reynos de las Indias' 을 가리키는 것으로 우리말로 하면 '식민지 제도(諸島)에 대한 국왕의 법규를 모은 법령집', 또는 줄여서 '식민지 관련 법령'으로 풀이할 수 있겠다.

예컨대 아메리카 식민지에서와 마찬가지로 스페인인들과 스페인계 메스티조들의 역할과 비중, 그리고 네덜란드령 동인도제도나 영령 말라야에서의 네덜란드·영국인 식민주의자들의 역할과 비중 등과 비교해 보면, 필리핀에서의 스페인인들의 경제적 역할과 비중이 상대적으로 얼마나 미약했는지를 알 수 있다. 경제활동 측면에서의 스페인인들의 상대적 공백 상황은 토착 필리핀인들이 차지할 수 있었던 상대적 활동 공간을 더욱 넓게 열어 주었으며, 이들은 매우 우호적인 경제적 기회구조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이다.

2. 필리핀의 스페인 식민지국가 구조와 지배체제

1) 식민지국가 구조의 기본 특성

필리핀 내 원주민들을 복속시키고 이들을 통치하는 지배체제를 재편하고 그리고 이들로부터 경제적 자원을 체계적으로 수탈해 내는 잉여수탈 체제를 수립하는 등의 '정복' 작업은 17세기 말까지 계속되었다. 이렇게 하여 성립한 스페인의 식민지국가 체제는 그러나 그리 집약적이지도 철저하지도 못하였다. 민다나오를 비롯한 많은 배후지역과 섬들이 아예 식민지배의 영향권 내에 들어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스페인의 영향권 내에 있던 루손과 비사야의 많은 지역들도 느슨하고 분권적으로 통치되었다. 식민지국가의 기구와 군대 등은 마닐라나 세부 등 몇몇 핵심적인 도시와 해안지역에만 배치되어 집중적으로 운용되었으며, 나머지 지방에는 지사(知事)를 파견하여 간접적으로 통치하였다.

먼저 이 시기 스페인의 식민지배 체제의 특성은 그 하부구조를 이루는 핵심적 요소였던 푸에블로에서 찾아볼 수 있다. 스페인은 정복 초기(1589년)부터 과거 원주민 사회경제체제의 핵심이었던 바랑가이를 해체하고 이를 푸에블로 체제로 전환하였다. 푸에블로는 도시형 타운으로서 기본적으로 500호의 가구로 이루어지는데, 대개 10 내지 15개의 바랑가이가 하나의 푸에블로를 구성하게 된다. 식민지당국은 원주민들을 전부 그들의 전통적인 거주지역(바랑가이)

으로부터 강제로 이주시켜 새로이 건설한 푸에블로에 정착하게 하였다. 그리고 이들에게 푸에블로 주위의 토지(‘푸에블로 토지’)를 주어 집을 짓고 농지를 경작하게 하였다. 그러나, 뒤에 다시 언급하겠지만, 이들에게 주어지던 토지에 대한 권리는 완전한 소유권이 아니라 용익권(用益權)이었다(Agoncillo 1969).

푸에블로는 또한 그 자체로서 스페인 가톨릭교회의 하나의 교구(教區)가 된다. 스페인 지배하 필리핀에 있어서 교회는 스페인 식민지 국가기구의 일 부분이다. 11-15세기 당시 스페인 본국에서의 국토회복운동(Reconquista, 레콩키스타) 과정에서 이미 스페인의 국가(군주)와 종교(교회)는 깊은 관련을 가지게 되었고, 스페인의 국왕은 ‘정복지’에서 성직자를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교황으로부터 부여받았다. 이때부터 교회의 성직자들은 정치에 관여하기 시작하였고 교회보다 군주에 대한 충성을 더 중요시하게 되었다(이전 1994: 41-42). 뿐만 아니라 그 후 신대륙의 식민지에서도 스페인 국왕은 가톨릭 교구를 새로이 설정하고 성직자를 임명하는 등 교회에 대한 포괄적인 권한을 교황으로부터 부여받게 되었는데, 스페인 국왕은 본국에서보다 식민지에서 교회에 대해 더 강력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다(민만식 외 1993: 56). 이러한 교회에 대한 전통은 필리핀에서도 그래도 적용된다.

필리핀에서 하나의 푸에블로는 하나의 가톨릭 교구가 되었고, 여기에 스페인인인 수사신부(修士神父, friar curate)가 파견되었다. 이들 각 교구의 수사신부들은 교회의 운영에만 관여한 것이 아니라, 스페인 식민지국가의 실질적인 하부 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예컨대, 푸에블로의 주민들은 수사신부의 허락을 받지 않고는 자신의 푸에블로를 떠날 수 없는 등, 수사신부에게는 주민들의 신앙 생활뿐만 아니라 일상사에 대한 일정한 영향력이 주어졌던 것이다. 식민지 각 지방에 대한 이러한 ‘푸에블로-가톨릭 교구’의 지배체제는 스페인 식민지 시대 끝까지 지속되었다(Agoncillo 1974; Corpuz 1997: 25-26, 62).⁷⁾

7) 스페인 지배하 필리핀에서 가톨릭교회가 국가기구의 일부분이라는 사실은 수사신부 등 교회 성직자들의 급여와 교회의 운영비가 식민지국가의 재정(‘왕실재정’)에서 지급된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다.

또한, 스페인은 식민지 필리핀을 여러 개의 주(州, province)로 나누어 각 주에 스페인인 지사를 파견하였다. 이 중 군사적으로 중요한 지역이나 아직 '정복' 작업이 진행중인 지역에는 코레히도르(corregidor, 군정(軍政)지사)를 파견하였고, '정복' 작업이 끝나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용되던 지역에는 알칼데(alcalde, 민정(民政)지사)를 파견하였다. 각 주의 주지사와 각 푸에블로의 교회 성직자들을 제외하면 지방에서 식민지배를 담당하는 식민지국가의 하부 조직은 전무하였던 것이다(Agoncillo 1969; Corpuz 1997: 38).

레코필라시온의 규정은 스페인 민간인들이 원주민들의 푸에블로에 거주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그래서 주지사, 수사신부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스페인인들은 마닐라나 세부 등 대도시에 거주하여야만 하였다. 각 주의 주도(州都)에 거주하던 주지사, 이들을 돕는 소수의 관리들, 그리고 각 푸에블로에 파견되어 있던 수사신부를 포함하는 교회 성직자들만이 지방에 거주하는 유일한 스페인인들이었다. 이 규정은 1751년까지 시행되었다(Corpuz 1997: 25). 이 또한 각 지방에서의 토착 필리핀인들의 사회경제적 활동 공간을 넓게 만드는 한 요인이 된다.

2) 국가 재정의 운용과 잉여의 수탈체제

스페인 식민지 국가기구는 이중적 구조로 구성되어 있었고 복잡적으로 운영되었다. 그 이중적 구조 중 하나는 스페인본국이 멕시코의 뉴스페인 부왕(副王, viceroy)을 통해 간접적으로 임명하는 필리핀 총독의 지휘를 받는 공식적인 행정체제이고, 다른 하나는 바로 국왕 직속의 통치체제이다. 후자는 식민지 '왕실재정'(real hacienda)을 그 핵심으로 하는데, 이를 운영하는 세 명의 국왕 직속 관리(reales oficiales)에 의해 움직여졌다. 이들 왕실관리들은 총독의 지휘를 받지 않았으며 총독과는 별개의 위계구조 상에 놓여 있었다. 한편, 식민지 필리핀에서는 주민들에게 일반적인 의미의 세금이 부과되지 않았다. 식민지 전체가 법적·공식적으로 국왕의 영토였으므로, 그 주민들은 국왕에게 공납을 바치면 되었다. 그리하여 필리핀 식민지국가의 국가 수입은 '왕실재정'에

의해 거두어지고 사용되었으며, 총독을 정점으로 하는 행정기구에서는 세금을 거두지 못하고 자체의 수입원이 없었기 때문에 재정을 모두 '왕실재정'에 의존해야 했다(Corpuz 1997: 41-43, 77-79).

스페인 식민지국가가 피지배 토착민들로부터 잉여를 수탈한 가장 대표적인 기제가 바로 공납 제도였다. 식민지의 대부분의 영토는 국왕의 개인 영토, 즉 엔코미엔다(encomienda)였으며, 따라서 식민지 주민들은 세금이라는 명목의 부담금 대신에 국왕의 개인 금고에 공납을 바쳐야 했다.⁸⁾ 스페인은 식민지 주민들을 푸에블로로 재조직화하고 이들에게 푸에블로 농지를 나누어주어 경작하게 한 후 그 노동의 결과물을 공납 등의 제도적 장치를 통해 거두어 들였다. 하나의 푸에블로에는 대략 500 가구가 거주하였는데, 공납은 푸에블로의 이들 각 가구별로 부과되었다.⁹⁾ 초기에는 쌀, 닭, 달걀, 돼지 등 현물로 납부하였으나 17세기 초 갈레온 무역이 성행하면서 멕시코 은화가 마닐라로부터 지방으로 유입되어 유통되게 되면서부터 공납의 일부를 현금으로 내는 것도 허용되었다. 가구당 공납 액수는 1589년까지는 기본적으로 연(年) 8레알(real)이었으며,¹⁰⁾ 1589년부터 10레알로 올려져 오랫동안 유지되었다(Corpuz 1997: 31-32).

공납 외에 잉여의 수탈 제도로 공출(供出, *compras*)이 있었으며, 원주민들의

8) 스페인 국왕은 식민지 정복과정에서 공을 세운 스페인인이나 가톨릭 교회와 수도회 등에 일정한 지역을 지정하여 이곳에서 공납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을 수여하였다. 이러한 권리 또는 이 특권에 의해 수여된 특정 지역을 엔코미엔다라 부른다. 엔코미엔다에는 국왕 자신의 엔코미엔다(왕실 엔코미엔다)와 민간 엔코미엔다가 있었는데, 후자의 대부분은 교회나 수도회에 하사된 엔코미엔다였다. 엔코미엔다의 특권을 가지는 개인이나 단체를 엔코멘테로(*encomendero*)라 하는데, 왕실 엔코미엔다의 경우 국왕, 즉 식민지당국이 엔코멘테로가 된다. 18세기에 들어와서 민간 엔코미엔다는 없어지고 모두 왕실 엔코미엔다로 통합되어 버린다(Agoncillo 1969, 1974).

9) 원래 푸에블로 자체가 기본적으로 공납을 염두에 두고 조직화 된 체제로, 하나의 푸에블로는 500개의 '공납 납부 단위' 즉 '가구'로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었다(Corpuz 1997: 25).

10) 1레알은 12.5센타보이고, 8레알은 1멕시코 페소와 맞먹는다. 따라서 1페소=100센타보.

노동력을 수탈하는 폴로(*polos y servicios*)라 불리는 부역(賦役)제도도 있었다. 공출은 앙코멘데로가 주민들로부터 농작물 등 생산물을 시장가격보다 싼 가격에 강제로 구매(收買)하는 것인데, 이는 공납 외에 추가로 부담하는 것이었다. 이것보다 더 주민들의 원성을 샀던 것이 폴로인데, 이는 연간 40일 동안 앙코멘데로를 위해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예로는 코르테스 데 마데라(*cortes de madera*)라 하여 나무를 베고 배를 건조하는 일인데, 스페인 인들과 식민지당국은 원주민의 노동력을 동원하여 갈레온 무역선이나 전함(갤리선) 등 온갖 배를 만들었던 것이다. 그 외에 교회 앙코미엔다의 경우 교회나 교구의 일을 돌본다든지, 심지어 앙코멘데로의 가사일을 돌보거나 수사신부의 사택에서 하인의 일을 하는 것 등이 있었다(Corpuz 1997: 34-35).

이러한 수탈제도 외에 또 한가지 원주민들에게 큰 부담이 되었던 것이 바로 교회 납부금 또는 헌금이다. 식민지 필리핀에서 가톨릭 교회는 자신의 앙코미엔다에서 공납, 공출, 부역 등을 수취하는 것 외에 추가로 “교구 납부금”(parish contributions)을 받을 수 있었다. 이는 (1) 미사나 기타 봉헌 예절(devotions)때 내는 헌금(alms)이나 기타의 예물(offerings), (2) 영세, 결혼, 장례 등의 종교행사 때 내는 기부금 등을 포함한다. 일년에 한번 내는 공납과는 달리 이 납부금은 일년 내내 수시로 부과되었으므로 그 부담은 더욱 컸다. 1766년의 한 보고서에 따르면, 왕실 앙코미엔다와 민간 앙코미엔다를 포함하여 식민지 내 모든 앙코미엔다로부터 거두어진 공납의 총액은 연간 총 25만 페소였는데, 이 중 18만 7천 페소는 교회와 성직자들의 몫이 되었고 나머지 6만 3천 페소만 ‘왕실 재정’으로 들어갔다고 한다. 한편, 공납 외에 교회에 내는 ‘교구 납부금’은 적어도 연간 24만 5천 페소에 달했다고 하면서, 이 보고서는 “결국 필리핀 군도에서 나는 이익의 거의 대부분은 교회 재정으로 들어간다”고 비꼬듯이 결론지었다(Corpuz 1997: 35).¹¹⁾

11) 이 자료로 봐서도, 역시 가톨릭 교회가 스페인 식민지 국가 기구의 중요한 한 요소이며 필리핀에서의 스페인 식민지배 체제의 중요한 한 기둥이라 하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하겠다.

스페인 식민지배하의 이와 같은 수탈체제는 식민지경제를 어느 정도 발전시키고 그 기초 위에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잉여의 전유를 추구하는 체제가 아니라, 현재의 생산력 수준에서 가능한 잉여를, 있는 그대로 수탈해 가는 약탈(marauder)의 체제이다. 이러한 체제에서는 그 특성상 식민지국가가 식민지경제를 계획적으로 발전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 특히 필리핀의 경우에는 식민지정부의 재정이 전부 왕실 재정에 의존하였으며, 식민지 주민의 경제활동으로부터 파생되는 국세나 관세 등 식민지정부 자체의 세원이 원천적으로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식민지정부가 앞장서서 식민지경제를 활성화시켜 세원을 개발하고 확대하려는 노력을 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식민지 주민들로부터 수탈하는 잉여의 대부분이 교회로 들어갔다는 점 또한 식민지국가의 식민지 경영에 대한 의욕을 저하시킨 요인으로 작용했다 하겠다.

이러한 몇 가지 요인들은 스페인 식민지국가가 주도하여 식민지경제의 변화와 발전을 보다 적극적으로 전향적으로 추구할 여지를 봉쇄해 버렸던 것이다. 만약 스페인 식민당국이 필리핀에서 일찍부터 대규모 식민지농업을 발전시키고 적극적으로 본국의 이주민들을 유치했다더라면, 많은 스페인인들이 필리핀으로 이주·정착해서 스페인인 또는 스페인계 메스티조 지배계급을 형성했을지도 모를 일이다. 그러나 실제의 역사는 그 반대로 흘렀으며, 이는 20세기 필리핀에서 토착 필리핀인 엘리트들이 정치경제적 지배계급으로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 중요한 한 원인이 되었다 하겠다. 필리핀에서의 이러한 상황은 19세기 초 라틴아메리카 각국이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한 이후 크리올요(criollo)나 스페인계 메스티조 집단이 탈식민지 사회의 지배계급의 중심을 이루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3. 국내 사회경제체제의 변화와 토착 지배계급의 맹아 형성

1) 전통적 사회경제체제

스페인 식민지배 이전의 필리핀에서 이슬람교의 영향하에 있던 남부의 술루나 민다나오 등은 술탄을 정점으로 중앙집권적으로 지배되었으나, 이를 제외한 루손과 비사야의 대부분의 지역은 바랑가이라고 불리는 마을공동체 조직에 기초한 사회경제체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었다. 바랑가이는 필리핀의 전통적인 마을 공동체를 의미하는데, 30 내지 100호의 가구로 이루어진다. 이는 기본적으로 친족 원리에 의해 조직되어 있으면서 하나의 독자적 정치경제체제를 이룬다. 그러나 일반적인 원시공동체 사회와는 달리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고 계급 불평등도 존재하였다. 스페인 시대 이전의 필리핀은 이처럼 수많은 독립적인 바랑가이들이 병렬적으로 산재해 있는 분권적 사회였으며, 이들 바랑가이들을 엮어 하나의 중앙집권적 정치체제로 통합하려는 어떠한 외적 압력도 존재하지 않았다(De la Costa 1992: 1-13; Pelmoka 1996).¹²⁾ 이들 전통적 바랑가이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활동은 역시 벼농사였으며, 코코넛, 기장 등도 재배하였고, 가축과 가금의 사육, 어로 활동 등도 활발하였다. 토지 등은 공동체의 재산이 아니라 개인의 소유였다. 다만 마을 주변의 숲이나 구릉지에는 바랑가이 전체가 소유하는 공유지가 있었다(De la Costa 1992: 1-13; Corpuz 1997: 15-17).

루손과 비사야 지역의 대부분의 바랑가이는 다투(datu)라 불리는 우두머리의 지배하에 있었으며 대개 다음과 같은 계급구조를 이루고 있었다고 여겨진다. 즉, 지배계급에 해당되는 다투 계급을 정점으로 그 아래 자유민, 평민, 천민 등 대략 네 계급으로 나뉘어 있었다는 것이다. 자유민과 평민은 모두 토지를 소유할 수 있었으나, 계급 위계의 가장 밑바닥을 이루는 천민 계급은 토지

12) 스페인 식민지배가 시작되고 푸에블로 체제가 도입된 후에는 바랑가이는 더 이상 이러한 사회경제체제의 단위로서가 아니라 푸에블로를 구성하는 하부 단위(우리나라의 동(洞)이나 리(里)에 해당)를 의미하는 말로 바뀌었다.

를 소유할 수 없었으며 하인이나 노예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다투나 다른 농지 소유자에 대해 어떤 경제적 의무나 부담도 가지지 않았던 자유민과 달리, 평민은 다투나 자유민에게 노동생산물의 일부를 바쳐야 하였다(Corpuz 1997: 18; Pelmoka 1996). 오늘날의 계층범주에 비유하자면, 자유민은 자작농민에, 평민은 소작농민에 해당된다 하겠다.

2) 스페인 정복과 사회경제체제의 변화, 1565-1700

전술한 바대로 이러한 전통적 바랑가이 사회경제체제는 스페인의 정복과정에서 푸에블로 체제로 재편된다. 각 푸에블로와 푸에블로 내 바랑가이의 우두머리들은 스페인인들이 아니라 원주민들 중에서 임명되었는데, 대개 과거의 다투 계급 성원들이나 그 자손들이 맡았다(Larkin 1982; Pelzer 1945; Phelan 1959). 이는 스페인인들로 보아서는 각 지역에 전통적인 지배구조를 일정 부분 그대로 온존케 함으로써 정복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원주민들의 집단적 반발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전략적 고려에 의한 것이기도 하고, 또 식민지 경영에 필요한 스페인인들의 인적 자원이 그리 충분하지 못한 데서 오는 교육지책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필리핀 원주민 상층 엘리트들의 입장으로 보서는 이러한 지위가 각 지역에서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자신들의 영향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치사회적 기반이 되었던 것이며, 더 나아가 토착 지배계급으로 발돋움하는 발판이 되었던 것이다.

한편, 푸에블로 체제로 재편되면서 기존에 원주민들이 가지고 있었던 토지에 대한 소유권 등 제 권리는 모두 부인되었다. 스페인 국왕은 식민지 필리핀 전 국토에 대한 공식적인 소유자였으며 각 푸에블로 농지도 마찬가지로 국왕에게 귀속되었다. 대신 푸에블로에 거주하는 원주민 각 가구는 일정한 규모(대략 45헥타르)의 농지에 대한 용익권을 부여받았다. 따라서 이 농지는 타인에게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었으며, 2년 동안 계속해서 이 농지를 경작하지 않으면 그 용익권마저 박탈당하였다. 과거의 다투 계급도 예외가 아니었다. 이들 또한 같은 규모의 푸에블로 농지를 받아 이를 경작해야 했다. 푸에블로 농업

부문에서는 '토지 없는 농민'과 '지주·소작농 관계'는 존재하지 않았다. 이는 '특정 농가의 농지의 경작에 있어서 가족노동력 이외의 노동력을 사용할 수 없다'는 법규정에 의해 뒷받침되었다(Corpuz 1997: 27-28, 45). 다시 말해 스페인 식민지배 초기에는 모든 원주민들이 단일의 소규모 자작소농 계급으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있다. 과거의 천민 계급도 사라졌고, 소작농도 임노동도 존재하지 않았으며, 경제적·계급적 분화는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이들 푸에블로 농지에서는 쌀을 비롯해 코코넛 등 내수용 작물의 경작과 가축, 가금의 사육 등이 행해졌으나, 상업용 작물이나 수출용 작물의 재배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토착 지배계급의 형성과 관련하여 빼놓을 수 없는 요소는 바로 이 시기의 중국계 상인의 등장이다. 공납과 공출 등 과도한 잉여의 수탈로 인해 원주민들 손에 남는 현물 생산물은 거의 없었으며, 이는 스페인 식민지배 초기에 원주민들 사이에 국내 교역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원주민들 중 상업활동에 종사하는 계층이 발달하지 못했던 주된 원인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레코필라 시온에 명시된 원주민의 주거제한 규정—교구 수사신부의 허가 없이는 자신이 거주하는 푸에블로를 떠날 수 없다는—또한 이에 기여하였다(Corpuz 1997: 33-36). 이러한 국내 교역의 공백 상황을 비집고 들어온 것이 중국계 상인들이었다. 이들은 이미 스페인의 식민지배 이전부터 마닐라 근처의 바랑가이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었는데, 1570년대 갈레온 무역이 시작되면서부터 그 규모가 더욱 커졌다. 매년 많은 중국 상선들이 갈레온 무역을 위해 비단, 도자기 등 진귀한 물건을 마닐라로 실어 왔는데, 이와 함께 식민지 내 주민들에게 팔 목적으로 소비재 상품들도 함께 들여왔다. 이는 필리핀에 남아 소매업을 하던 중국인 상인들에 의해 마닐라 인근의 여러 푸에블로에서 판매되었다. 이들 중국인 상인들이 필리핀에 입시로 거주하고 지방의 푸에블로에 들어가서 상행위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식민지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했으며, 이를 위해 일정한 수수료를 내어야 했다. 한편, 이들에게는 원주민 푸에블로에서 숙박하는 것조차 금지되었으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제약이 따랐고, 이를 어길 때에는

강제 노역을 당하는 등 그 처벌이 매우 엄하였다. 이러한 엄격한 제약과 처벌 등은 이들 중국인 상인들로 하여금 가톨릭으로 개종하게 한 원인이 되었다.

그리하여 이 시기에 많은 중국인 상인들이 가톨릭으로 개종하였으며 이렇게 개종한 중국인 상인들은 푸에블로에 거주하는 것이 허용되었다. 이들 부유한 중국인들과 원주민 상층계급의 딸이 결혼으로 맺어지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필리핀에는 점차 '중국계 메스티조' 집단이라는 새로운 인종집단이 형성되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들의 메스티조 후손들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 대부분 상인이 되었고, 상업활동을 통해 점차 부를 축적해 나갔으며, 궁극적으로는 필리핀 토착 지배계급의 맹아로 발전하였던 것이다(Agoncillo 1969; Pelmoka 1996; Pelzer 1945).¹³⁾

3) 18세기의 사회경제적 변화

필리핀에서 농지는 1700년 이전만 하더라도 시장 가치가 거의 없었다. 토지는 풍부하고 인구는 오히려 감소했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수요가 매우 낮았을 뿐만 아니라, 가족 노동력 외의 노동력을 사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족의 경작 능력을 초과하는 토지는 무용지물이었다. 또한 대부분의 잉여가 공납이나 공출 등 여러 가지 명목으로 수탈되었으며, 잉여 농산물에 대한 시장도 형성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히 농지를 확대해서 잉여 농산물을 창출하고자 하는 동기도 별로 없었다. 그러나 이런 사정이 18세기에 들어와서 크게 변하기 시작한다. 우선 1730년대부터 인구가 크게 증가하여 토지에 대한 압박으로 작용하였고, 각 지역간·푸에블로간 국내 상업이 발달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푸에블로 농지에서도 시장에 내다 팔기 위한 상업적 농업이 시작되었다. 쌀뿐만 아니라 고추, 코코넛, 카카오, 옥수

13) 1800년 또는 그 이후 상당 기간까지도 "메스티조"라는 말은 '중국계-원주민 메스티조'를 일컫는 말로만 사용되었다. 이는 스페인인들이 푸에블로에 거주하는 것이 1751년 이전에는 허용되지 않았었다는 사실과도 관련된다. 결국 18세기말까지는 '스페인인-원주민 메스티조'는 거의 없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추론일 것이다.

수, 커피 등 환금작물의 재배가 크게 늘게 되었다(Corpuz 1997: 51, 61, 66).

이런 기회구조 하에서 상층 원주민 엘리트들과 중국계 메스티조 계급은 상업을 통해 부를 축적하게 되었으며, 이렇게 축적한 부를 가지고 고리대금융에도 뛰어들게 된다. 인구의 증가 등으로 푸에블로에서의 삶이 더욱 힘들어지고, 가톨릭 교회와 전통적 문화가 결합함으로써 새로이 등장한 종교적 축제나 행사에 들어가는 비용이 많아지면서 일반 원주민 각 가정에서 빚을 지는 일이 크게 늘어났으며 빚이 빚을 낚는 악순환의 늪에 빠지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이런 상황에서 당시 상업을 통해 부를 축적한 중국계 메스티조 엘리트들이 자연스럽게 돈을 빌려주는 대금융자로 등장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들은 일반적인 고리대 외에 특히 농지를 담보로 하고 돈을 빌려주는 *sanlangbili*(토지담보부대여 및 저당토지의 유질(流質)을 포함하는 개념)를 주로 행하였다.¹⁴⁾ 채무자가 농지를 담보로 돈을 빌리게 되면 그 채무가 변제될 때까지 그 담보 농지에서 생산되는 소출에 대한 모든 권리를 채권자가 가지게 되었다. 이리하여 채무자가 돈을 갚을 수 있는 기회는 매우 낮아지고, 대개의 경우 이 담보 농지는 대금융자의 소유가 되었다. 이런 식으로 푸에블로의 상층 계급 특히 중국계 메스티조 계급은 자신들의 농지를 크게 확장해 나갈 수 있었던 것이다(Corpuz 1997: 51, 58, 69).

III. 스페인 식민지배 후기: 19세기

1. 세계경제체제의 변화와 필리핀의 개항

18세기의 ‘유럽 중심의 세계경제체제’(European world-economy)는 영국과

14) 농지는 법적으로 국왕의 소유였으므로 이를 담보로 돈을 빌려 주는 것은 불법이었다. 그러나 토지담보부대여는 공공연히 행해졌으며, 스페인 당국은 이를 제재할 효과적인 수단을 갖고 있지 못했다.

프랑스 간에 벌어지는 패권 경쟁으로 특징지어진다. 영국과 프랑스는 1689년부터 1756-63년의 7년전쟁에 이르기까지 백여 년간 각축을 벌이는데, 이는 '제2 백년전쟁'으로 불리기도 한다(Wallerstein 1974: 6장). 이 대결은 결국 영국의 승리로 끝나고 영국은 1763년 파리조약을 계기로 유럽의 가장 강력한 중심 국가로 떠오르게 되었다. 한편, 1783년의 또 다른 파리조약은 미국이 독립혁명의 승리를 통해 세계체제 속에 자신을 공식적으로 자리매김하는 출발점이 되었다. 그리하여 19세기의 세계체제에는 영국, 프랑스 외에 미국이라는 중요한 참가자가 새로이 가담하였고, 그 전부터 중심부 국가의 하나였던 영국의 비중은 더욱 커졌던 것이다.

한편, 스페인은 17세기 초 이래 그 영향력이 날로 약화되어 갔는데, 마침내 19세기 초에는 결정적인 타격을 받게 된다. 유럽의 19세기는 '나폴레옹 전쟁'으로 시작된다. 나폴레옹은 1807년 스페인을 점령하고 그의 형 조셉 보나파르트를 스페인의 왕으로 앉힌다. 이렇게 하여 급속히 약화된 스페인의 왕권은 1830년대부터는 입헌군주제를 허용하게 된다. 나폴레옹 전쟁의 여파는 라틴 아메리카의 스페인 식민지에도 미쳐 1816년 아르헨티나를 시작으로 1820년대에는 대부분의 라틴아메리카의 스페인 식민지가 독립을 하게 되고, 16세기 이래의 (스페인, 신대륙의 식민지, 필리핀 등으로 이루어지는) '스페인 중심의 세계체제'는 그 근간에 근본적인 변화가 오게 된다. 이리하여 19세기의 세계체제는 영국을 핵심으로 미국, 프랑스 (그리고 19세기 중엽 산업혁명에 성공한 독일) 등의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을 그 '중심부'(core)로 하는 새로운 궤도(orbit)를 그리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한편, 18세기 말 이래 서구 열강의 아시아 진출도 매우 활발해졌는데, 특히 영국은 1800년 이전에 이미 벵골(Bengal) 등 인도의 주요 지역을 점령하였고, 19세기에는 본격적으로 중국에 진출하게 된다. 유럽과 아시아 사이의 교역, 특히 영국-벵골-광저우(廣州)를 잇는 인도양 해상로를 중심으로 한 교역은 필리핀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뿐만 아니라 미국 또한 19세기 초반 태평양을 건너 중국의 광둥(廣東) 지역 등과의 교역이 늘어나면서 이 또한 필리핀의

사회경제적 변화를 촉진하였다. 이리하여 필리핀의 관점에서 볼 때, 19세기의 '필리핀을 둘러싼 세계경제체제'는 스페인뿐만 아니라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 등 서구 열강들이 다원적인 형태의 '중심부'를 구성하면서, '주변부' 필리핀에 일정한 경제적 역할을 요구하는 체제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시기 필리핀은 그 이전 시대처럼 이 새로운 세계체제의 단순한 읍서버, 즉 '외부지역'이 아니라, 이제 이 체제의 완전한 참가자로서 체제에 확실히 '편입'이 되었으며 더 나아가 점차 '주변부화'마저 진행되고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¹⁵⁾

필리핀은 18세기말 본격적으로 대외교역에 그 문호를 개방하게 된다. 마닐라항은 1785년 일부 아시아 상인들에게 부분적으로 개방되었다가, 1789년에 유럽과 미국의 상인들에게 전면 개방된다. 1800년 이전만 해도 필리핀과 외부 세계를 연결하는 선은 갈레온 무역과 중국 상인에 의한 아시아 여러 지역과의 교역이 전부였다. 그러나 마닐라-아카폴코간 갈레온 무역은 벵골-광저우 교역로를 통한 유럽-아시아간 교역이 활발해짐에 따라 쇠퇴하였고, 1811년 그 마지막 배가 마닐라항을 떠나면서 완전히 끝나게 된다. 1820년대에는 많은 유럽과 미국의 무역상사들이 마닐라에 문을 열게 되었고, 이들은 그 후 필리핀에서 수출용 농산물 재배가 발달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Corpuz 1997: 100-8). 한편, 1855년에는 서부 비사야 지역의 사탕수수 경작이 크게 늘어나면서 설탕 수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일로일로(Mioilo)가 국제무역항으로 개항하기도 하였다(Corpuz, 1997: 150). 그리하여 이제 필리핀은 중국 등지의 비단, 도자기 등을 멕시코와 페루로 실어 나르는 단순한 중계항의 역할에서 벗어나, 설탕, 마닐라삼 등 토착의 농산물을 생산하여 유럽과 미국 등지에 수출하고 이들로부터 섬유, 금속류 등 제조업 제품을 수입하는, 세계경제체제의 명실상부한 일원(그것도 전형적인 주변부적 일원)이 되었던 것이다.

15) '세계경제체의 편입'(incorporation)과 '주변부화'(peripheralization)의 개념 차이에 대해서는 Wallerstein (1989: 129이하)을 참조할 것.

2. 식민지국가의 경제정책과 그 '의도하지 않은 결과'

19세기에 필리핀의 스페인 식민지국가는 필리핀에서 농업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적 노력을 기울인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의 대부분은 실패로 끝나게 되고, 그 의도하지 않은 결과로 오히려 필리핀의 토착 상층 계급의 경제적 역할이 더욱 확대된다.

1778년 스페인 국왕 카를로스 3세(재위, 1759-88)는 필리핀에 새 총독 바스코(Bascoy Vargas)를 파견한다. 바스코는 식민지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경제개혁을 추구하게 된다. 이 개혁의 골자는 필리핀에서 농업, 특히 플랜테이션 농업을 중심으로 수출위주의 경제를 발전시키며, 더 나아가 이를 설탕, 면직물 등 농가공업이나 제조업으로 연결하여 발전시킨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 외국으로부터의 제조업 제품의 수입을 억제하는 등 다분히 보호무역정책을 통한 국내 산업의 육성을 정책적 수단으로 사용하려 하였다. 한편, 식민지당국은 필리핀 상품의 수출과 유럽 및 북미 각지와와의 교역을 촉진하기 위하여 1785년 레알 콤파니아(Real Compania de Filipinas, 왕립 필리핀상사)를 설립하고, 이 회사에 특히 필리핀과 스페인본국 간의 직접 교역에 대한 독점적 권한을 부여하였다(Corpuz 1997: 89-96).

그러나 18세기 말-19세기 초의 식민지당국의 이러한 개혁정책은 결국 실패로 끝나고 마는데, 그 가장 큰 이유는 이들 프로그램에 대한 스페인인들의 협조와 참여가 거의 없었다는 점이다. 필리핀에 건너온 스페인인들은 기본적으로 상인자본가들이었지, 농업자본가는 아니었다. 이들은 갈레온 무역과 같이 투기적 교역행위에는 관심을 가졌지만, 많은 자본을 투자하여 농장을 건설하고 이를 장기적 계획을 가지고 경영할 의도는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이다. 레알 콤파니아의 경우만 해도 스페인국왕이 앞장서서 이 회사의 주식을 사는 등 투자를 독려했지만, 필리핀 내 스페인인들은 아무도 여기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Corpuz, 1997: 92-93). 이들 스페인인들 대신 오히려 식민지정부가 경제개혁 과정에서 그 역할을 과소평가하고 식민지농업 발전 계획에서 완전히 도외

시했던 상층 원주민이나 중국계 메스티조 엘리트층 구성원들이 19세기 초 식민지국가가 촉발한 이러한 기회구조를 적절히 활용하게 된다.

19세기 스페인 식민지국가가 행한 두 번째 중요한 노력은 플랜테이션 농업을 육성하려는 시도였다. 1820-30년대부터 몇몇 모험적인 유럽인 농장주들에 의해 플랜테이션 농장을 건설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이에 식민지당국은 이들에게 레알렝가(Realengas)를 거의 무료로 불하하는 등 플랜테이션 농업을 육성하는 정책을 펴 나갔다(Corpuz 1997: 117, 148).¹⁶⁾ 이런 기회를 활용하여 19세기 중엽을 전후하여 많은 수의 유럽인들이 사탕수수 등의 플랜테이션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이들 유럽인 농장주들의 대부분은 실패하고 만다. 플랜테이션을 건설하는 데 엄청난 투자와 노력이 필요하였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노동력의 부족으로 제대로 운영하기가 힘들었다. 이렇게 유럽인 농장주들이 실패한 플랜테이션들은 상층 필리핀인 토착 엘리트들의 손으로 들어갔다. 그리하여 유럽인 농장주들의 플랜테이션 경영의 시도는 대부분 실패하고, 그 대신 식민지당국의 본래 의도와는 달리 이들 유럽인들의 농장을 매입한 상층 토착 엘리트들이 필리핀 플랜테이션 농업의 주도적 역할을 떠맡게 되었던 것이다.

이처럼 스페인 식민지국가의 정책은 반쪽의 성공이었다. 식민지당국이 19세기 필리핀에서 플랜테이션을 중심으로 수출지향적 농업경제를 건설하려는 목표는 결과적으로 이루어졌으나, 이를 원래 식민지당국이 의도한 대로 스페인인들이 주도하지 못하고 결국 토착 필리핀인들이 주도하게 되었다는 점에서는 절반의 성공이라 할 수 있으며, 의도하지 않은 결과라 하겠다. 한편, 스페인 식민지국가는 플랜테이션 농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레알렝가의 토지를 매우 싸게 매각하는 등 플랜테이션의 확대를 장려하는 정책을 스페인 식민지 시대 말까지 계속하였으며, 이는 19세기 후반에 이 부문을 장악한 토착 지

16) 레알렝가는 왕실 토지 또는 국유지를 말한다. 16세기부터 스페인이 정복사업으로 확보한 식민지 내 모든 토지는 '푸에블로 토지'이거나 '국왕하사지'가 아니면 모두 레알렝가로 분류되었다. 실제로 레알렝가의 대부분은 경작이 불가능하거나 힘든 황무지였고, 그것도 아니면 푸에블로로 재편되지 못한 토착 원주민 소수 종족집단이 거주하던 지역이었다.

배계급의 경제력 확대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되었다.

3. 수출농업의 발전과 새로운 토착 지배계급의 형성

1) 19세기 전반의 사회경제적 변화와 계급구조 형성

18세기 말-19세기 초의 세계경제의 변화와 스페인 식민지국가의 정책 등은 필리핀의 토착 농업 엘리트들로 하여금 수출용 환금 작물 재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동기를 부여하였고, 이 부문에서 경쟁 상대가 될 수 있었던 스페인인들의 관심과 의지 결여는 전자로 하여금 이 부문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게 만들었다. 전술한 바대로 18세기부터 이미 각 푸에블로의 많은 부유한 상층 원주민이나 중국계 메스티조 엘리트들은 고리대와 토지 겸병을 통해 자신들의 경제적 자원을 크게 확장해 나갔다. 이들은 자신들의 농지에다 그 동안 토지매입이나 저당 토지의 유질(流質)(즉, sanlangbili) 등을 통해 확보한 농지를 더하여 농장의 규모를 꽤 크게 확장하였고, 이 농지에다 18세기 중엽부터 이미 사탕수수, 면화, 후추, 인디고, 커피 등 환금작물을 재배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재배한 농작물은 레알 꼬빠니아가 대부분 구매해 주었다.¹⁷⁾ 이렇게 되면서 각 푸에블로에서는 그 동안 황무지로 버려져 있던 토지에 대한 개간도 활발히 이루어졌으며, 이 상업용 작물 부문에서 일하는 노동력의 규모도 크게 증가하게 되었다.¹⁸⁾

1820년대부터는 마닐라에 영국과 미국의 무역상사들이 차례로 문을 열기 시작하였으며 이들 무역상사의 설립은 필리핀의 상업용 작물의 수출을 크게

17) 레알 꼬빠니아는 그리 성공적이지 못해 1834년에는 해체된다(Corpuz 1997: 107).

18) 19세기가 되면 중국계 메스티조는 원주민 인종집단과 구별하기 힘들거나 아니면 특별히 구별할 필요성이 없는 집단이 된다. 이들은 더 이상 중국계 아버지와 원주민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전형적인 혼혈 1세대가 아니고, 이미 몇 세대를 거치면서 인종적으로 원주민과 깊숙이 혼합되어 버린다. 아래에서부터는 이 두 집단을 구분하지 않고 필리핀인 상층 토착 엘리트 집단 또는 토착 지배계급으로 칭하기로 한다.

촉진하는 자극제 역할을 하였다. 그리하여 1820년대부터 설탕, 면화, 인디고 등의 수출이 크게 늘어나기 시작하였으며, 1829년부터는 설탕이 필리핀 제 1위의 수출 품목으로 뛰어올라 스페인 시대가 끝날 때까지 그 자리를 지켰다. 수출용 작물의 가장 주된 공급자는 상층 토착 엘리트들이었는데, 이들은 이전 시대처럼 고리대를 통한 토지 겸병을 계속했다(*sanlangbili*). 이 시기의 이들의 토지겸병은 그 이전보다 더욱 적극적이고 광범위하게 행해졌다. 이제 담보토지의 유질이 발생하면 채권자는 이 토지의 지주가 되고, 채무자는 과거의 자신의 땅의 소작인이 되는 상황이 일상화되었으며, 토지담보부 대여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토지의 이전이 당연시되었다(*Corpuz* 1997: 115, 147-8). 뿐만 아니라 19세기에 들어와서 이제 농지는 공공연히 매매되는 상품이 되었으며 큰 규모의 토지거래시장이 형성되었다. 비록 여전히 토지의 매매와 이전은 불법이었지만 스페인 식민국가의 낡은 법제도는 시대의 흐름을 뒤쫓아가는 상황이 되었고, 사회경제적 변화의 속도는 이미 이를 훨씬 추월하고 있었던 것이다. 토지담보부 대여(*sanlangbli*)의 경우는 그래도 채무자가 이 땅에 그대로 남아 채권자·지주의 소작농이 되지만, 토지매각의 경우는 매각의 대가로 현금을 받은 다음에는 자신의 농지를 떠나야만 했다. 이리하여 농지에 대한 어떤 권리도 가지지 못하는 '토지 없는 농민' 또는 농업노동자가 대규모로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한편에서는 상인·대금업자 겸 대지주 계급으로서의 토착 지배계급이 등장하였고, 이와 동시에 그 대척점에서는 토지를 잃고 노동력만으로 살아가야 하는 토지 없는 농민과 소작농 계급이 창출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한편, 상층 토착 농업 엘리트들과 더불어 당시 식민지 농업을 주도하던 또 하나의 세력은 스페인계 가톨릭 수도회들이다. 전자가 이 시기에 이미 수출용 작물 재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가톨릭 수도회에서는 대규모 농장에서 주로 쌀, 과일, 채소 등 내수용 작물을 재배하여 국내 시장에다 내다 팔았다. 스페인 국왕은 정복사업 초기부터 식민지의 많은 토지를 가톨릭교회와 수도회에 하사하였으며, 특히 도미니크회, 아우구스티누스

회 등 수도회에 수여된 토지는 농장으로 전환되었는데 그 규모가 매우 커서 하시엔다로 불리게 되었다. 이들 하시엔다는 다른 일반 푸에블로 지역에서는 금지되어 있었던 소작에 의거해 경작이 이루어졌으며,¹⁹⁾ 대개 마닐라 근교나 타갈로그 지방에 위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리핀 농업경제의 대중을 이루는 계층은 이들 두 지배적 집단보다 수적으로 가장 많은 소규모 자작농민들이었다. 당시 법적으로는 여전히 다른 사람의 농지에서 일하거나 또는 자신에게 주어진 푸에블로 농지를 경작하지 않고 놀리는 것이 불법이었으므로, 이들은 자신에게 부여된 농지에서 가족노동력을 동원해서 일하게끔 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미 언급한 바대로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 조건의 변화로 토지 없는 농민들이 생겨났고, 이로 인해 소작이 본격적으로 발생하고 농업노동자가 대량으로 발생한 것도 이 시기이다. 그리하여 19세기 전반을 지나면서 필리핀 농촌에서의 계급관계구조는 새로운 모습을 띠기 시작했다. 과거의 단순했던 계급구조가 보다 복잡해지고 양극화의 경향을 보이기 시작하였으며(Larkin 1982), 여전히 자작농민의 규모가 크긴 하였으나 새로이 등장한 하층 농민계급의 비중이 점차 증가해 나갔다.

2) 플랜테이션 농업의 시작과 수출농업의 발전

1820년대부터 필리핀 농업경제에 또 다른 중요한 변화가 나타났다. 그것은 바로 플랜테이션 농업의 시작이다. 당시 일부 모험적인 유럽인 농장주들에 의해 시작된 플랜테이션 경영은 이후 점차 확대되어 필리핀 수출 농업 부문의 근간으로 떠오르기 시작하였다. 1823년 프랑스인 지로니에르(Gironiere)가 마닐라 인근의 라구니주에 2,460헥타르에 달하는 대규모 플랜테이션을 시작한 것이 필리핀에서의 플랜테이션 농업의 효시가 된다. 그를 뒤이어 프랑스인 비

19) 하시엔다는 중압집중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대규모 농장이라는 점에서는 플랜테이션과 같으나, 임노동에 의존하는 플랜테이션과 달리 농지를 소규모로 나누어 이를 소작케 한다 (하시엔다와 플랜테이션의 차이에 대해서는 Wallerstein 1974 볼 것).

디에(Vidi), 스페인인 아사올라(Azaola), 로하스(Roxas) 등이 초기에 성공적이었던 대표적인 플랜테이션 농장주로 꼽힌다(Corpuz 1997: 110~11). 이들은 국유지인 레알렙가를 거의 무료로 불하 받아 여기에서 플랜테이션을 건설하였다. 특히 프랑스 출신 가스통(Gaston)과 영국인 로니(Loney)는 비사야 제도의 네그로스 섬에 처음으로 사탕수수 플랜테이션을 시도한 사람들로 유명하다. 그후 오늘날까지 네그로스는 필리핀 설탕산업의 중심이 되었다.

그러나 플랜테이션 농업을 발전시키려는 이들 유럽인들의 초기의 성공은 오래 지속되지 않았다. 황무지인 레알렙가를 개간하고 새로이 건물을 짓고 시설을 마련하여 플랜테이션을 건설하는 일은 엄청난 투자를 필요로 하는 일이었으며 초기 2-3년간은 수익은 전혀 없이 비용만 발생하였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들 유럽인 플랜테이션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노동력의 확보였다. 당시만 해도 필리핀인 농민들 중에 작은 규모이긴 하나 자신의 농지를 소유한 자작농의 비중이 여전히 높았으며, 원주민 필리핀인들은 유럽인들의 플랜테이션에서 임금을 받고 일하는 것을 꺼려 하였다. 결국 유럽인 농장주들이 건설해 놓고는 제대로 운영하지 못한 플랜테이션들은 부유한 토착 필리핀인 농업 엘리트들에게 차례로 팔려나갔다. 그리하여 결국 궁극적으로 플랜테이션 농업의 근간을 이룬 것은 식민당국이 원래 의도한 것과는 달리 스페인인들이나 유럽인들이 아니라 토착 필리핀인 농업엘리트들이었던 것이다.

한편, 1850년경부터는 네그로스 섬에 사탕수수 플랜테이션이 본격적으로 시도된다. 네그로스는 원래 인구가 많지 않고 제대로 된 산업도 없는 그리 중요하지 않은 섬이었다. 그러나 주요 무역항인 일로일로와의 거리가 가깝다는 점이 크게 작용하여 새로이 사탕수수 생산의 중심지로 떠오르게 되었다. 플랜테이션에 부족한 노동력은 이웃한 파나이 섬 등에서 충원되었다. 1850년 당시 섬 전체의 인구가 35,000여 명에 지나지 않던 것이 1879년에 10만여 명, 1887년에는 37만여 명으로 급증하였다(Corpuz 1997: 144). 1860년대부터는 마닐라

삼의 재배도 더욱 활발해져 그 재배지역 또한 비콜 반도의 알바이와 소르소곤 등지에서 이웃한 레이테와 사마르 등으로 확산되어 나갔다. 비콜 반도와 레이테 등은 오늘날까지도 마닐라삼의 대표적인 산지로 꼽히고 있다

그리하여 플랜테이션 농업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19세기 중엽부터는 설탕, 마닐라삼 등의 수출용 작물의 생산과 수출량이 급증하게 되었으며, 이들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비약적으로 늘어났다. 1840년대 초에 이미 설탕, 담배(잎담배와 시가(여송연)포함), 마닐라삼 이 세 품목의 수출은 전체 수출의 86%를 차지하게 되었고, 여기에 그 다음으로 중요한 수출품이었던 인디고, 커피, 면화 이 세 품목까지 합할 경우, 이들이 총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7.4%에 이르렀던 것이다(Corpuz 1997: 109). 전체 수출 규모 또한 급증하였는데, 1840년 260만 달러(US\$)가 채 안 되던 수출액은 20년 뒤인 1860년에 천만 달러를 넘어섰고, 그 뒤 10년 뒤인 1870년에는 3천만 달러에 육박하게 되었던 것이다(US Philippine Commission 1905).

19세기 동안의 필리핀에서의 수출농업의 발전이 얼마나 인상적인가 하는 것은 스페인 식민지배 말기의 수출 통계가 잘 보여주고 있다. 다음은 스페인 식민지배가 끝나기 불과 몇 년 전인 1894년부터 1896년까지 3년간의 수출 관련 통계를 평균해서 분석해 본 것이다. 연평균 총 수출액은 3,259만 달러인데, 그 중에 설탕이 차지하는 비중이 39.6%(약 1,291만 달러), 그 다음이 마닐라삼으로 총 수출의 38.1%(1,241만 달러), 그리고 담배(잎담배와 시가) 제품이 13.2%(431만 달러), 코프라가 8.2%(약 268만 달러)를 차지하였다. 이 네 품목의 수출액만 해도 전체 수출액의 99%가 넘는다.²⁰⁾

19세기의 이러한 수출농업의 비약적 발전에 힘입어 그 핵심 생산자였던 토

20) 원 자료는 1899년의 미 상원 의회자료(U.S., 55th Congress, 3d Session, Senate Document No. 62, Part 1, *A Treaty of Peace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Spain*, 620)에 첨부된 Max L. Tornow의 “A Sketch of the Economic Condition of the Philippines”란 제목의 글에 들어있다. 본문의 수치는 코르푸스(Corpuz 1997: 186)에 의해 인용된 통계치로부터 필자가 다시 계산해 내었다.

착 지배계급의 경제적 역량은 더욱 공고하게 된다. 그리고 이렇게 경제적 입지를 확고히 한 토착 지배계급은 19세기 말부터 자신들의 높아진 경제적 역량과 사회적 지위에 걸맞은 정치적 역할을 요구하면서 스페인 식민당국과 반식민지 투쟁을 주도하게 되고, 이러한 노력은 미국의 식민지배 초기에까지 이어진다.

IV. 요약 및 결론

16세기 중엽이래 300여 년간의 스페인 식민지 기간 동안 스페인 식민지국가와 스페인인들의 식민지 경영은 기본적으로 소극적이고 조방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으며, 이는 필리핀 토착의 지배계급이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구조를 마련해 주었다. 먼저 스페인 식민지배 전기가 할 수 있는 18세기 말까지만 하더라도 필리핀이 '스페인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체제'에서 차지하는 위상과 역할은 극히 미미한 것이었고, 필리핀 제도는 라틴아메리카의 다른 스페인 식민지와 비교해 볼 때 경제적으로 별로 매력적이지 못한 땅이었다. 뿐만 아니라 스페인 식민지국가의 구조적 성격이나 운영양식 또한 식민지경제를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발전시키는 것과는 거리가 멀었다. 교회를 포함한 식민지 국가기구는 식민지 주민에 대한 근시안적인 수탈에만 몰두했으며, 보다 장기적인 계획 하에 식민지국가가 주도적으로 개입하여 식민지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노력은 전혀 찾아 볼 수 없었다. 그리하여 이 기간 동안 필리핀의 식민지 경제는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렀던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식민지 필리핀으로 이주해 와서 적극적으로 식민지경제의 발전에 동참하고자 하는 스페인본국으로부터의 이주민은 거의 없었으며, 필리핀에 거주하는 스페인인들조차 비생산적이고 투기적인 마닐라-멕시코 간 갈레온 무역에만 몰두하였던 것이다. 이상의 요인들은 필리핀에서 스페인인이나 스페인계 메스티조 출신 지배계급이 부재하게 된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었고, 더 나아가 토착 필리핀인 엘

리트들에게는 경제활동의 여지를 크게 넓혀 주는 등 긍정적인 기회구조를 제공하였다.

한편, 스페인 식민지배 이전부터의 전통적인 상층 원주민 엘리트들의 경우, 스페인의 식민지배가 시작되면서 그 경제적 기반은 거의 완전히 붕괴되었지만, 각 지방에서 예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나름대로의 사회적 영향력은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리고 역시 스페인 식민지배 이전부터 마닐라 등지에서 활동을 하던 중국인 상인들은 식민지 시대가 열리고 갈레온 무역이 본격화되면서 그 활동이 더욱 활발해지게 되었다. 이들 중국인 상인들이 그후 상층 원주민 엘리트 계층과 결혼으로 맺어지면서 새로이 중국계 메스티조 집단이 창출되었고, 이는 필리핀 토착 지배계급의 핵심적 구성요소가 되었다. 이들 상층 원주민 엘리트 및 중국계 메스티조 엘리트들은 18세기에 들어와서는 상업, 고리대금업과 토지 겸병 등을 통해 경제적 자원을 크게 확대하게 되었으며, 스페인인들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한 토착 경제집단으로 성장하게 된다.

스페인 식민지배 후기라 할 수 있는 19세기에 들어와서는 사회경제적 상황과 식민지국가의 태도가 크게 바뀐다. 국제 경제환경의 변화는 필리핀으로 하여금 새로운 세계체제에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촉구하였고, 이에 자극 받은 식민지당국 또한 수출지향적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적 노력을 경주하게 된다. 식민지당국은 대규모 플랜테이션 농장을 육성하고 사탕수수, 담배 등 수출용 작물의 재배와 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지원과 정책을 펴 나갔다. 그러나 식민지당국의 의도와는 다르게 스페인인이나 유럽인들에 의한 플랜테이션 농장 경영과 수출용 작물의 재배는 크게 발달하지 못한 반면, 이러한 기회구조를 적절히 활용한 토착 필리핀인 농업 엘리트들이 경제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다. 그리하여 필리핀은 19세기 중엽부터는 설탕, 담배, 마닐라삼 등의 제품을 미국과 유럽 주요 국가에 대량으로 수출하는 주요 농산물 수출 국가로 자리잡게 되었고, 이러한 수출농업의 발전은 19세기 후반 필리핀 토착 엘리트들이 식민지경제를 주도하는 필리핀의 경제적 지배계급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는 데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던 것이다.

이들 토착 필리핀인 지배계급은 그 후 20세기 전반의 미국의 식민지배 기간 동안에 특혜관세에 입각한 미국의 대(對)필리핀 자유무역정책과 토착 주민들에 대한 정치적·행정적 자율권 부여를 특징으로 하는 식민지국가의 '필리핀화' 정책에 힘입어 자신들의 경제적·정치적 영향력을 더욱 강화하게 되었고(박승우 1993), 그렇게 함으로써 1946년 탈식민지화되면서 명실상부한 헤게모니 집단, 과두 지배집단으로 등장하게 되었던 것이다.

주제어: 필리핀, 토착 지배계급, 스페인 식민지배, 식민지국가, 세계체제

참고문헌

- 민만식·강석영·최영수. 1993. 『중남미사』. 서울: 민음사.
- 박승우. 1993. "식민지 지배하의 한국과 필리핀의 농업부문을 중심으로 한 사회경제적 변화와 그 의미." 『사회문화논총』 8: 109-34.
- 박승우·김철규. 1995. "세계체제." 『사회학연구』 pp. 241-70. 서울: 한국사회학연구소.
- 이 전. 1994. 『라틴아메리카 지리: 문화와 역사 그리고 정치 시사를 중심으로』. 서울: 민음사.
- Agoncillo, Teodoro A. 1969. *A Short History of the Philippines*. New York: New American Library.
- . 1974. *Introduction to Filipino History*. Quezon City, Philippines: Garotech Publishing
- Aquino, Belinda A. 1987. "Politics of Plunder: The Philippines under Marcos." Quezon City: Great Books Trading.

- Cardoso, Fernando Henrique, and Enzo Fletto. 1979. *Dependency and Development in Latin America*.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Corpuz, O. D. 1997. *An Economic History of the Philippines*. Quezon City: University of the Philippines Press.
- De la Costa, Horacio. 1992. *Readings in Philippine History*. Manila: Bookmark.
- Hutchcroft, Paul D. 1991. "Oligarchs and Cronies in the Philippine State: The Politics of Patrimonial Plunder." *World Politics* 43(3): 414-50. (박사명 역. 1992. "필리핀 국가와 과두제: 가산제적 침탈의 정치." 동남아정치연구회 편. 『동남아정치와 사회』 pp. 239-91. 서울: 한울.)
- Evans, Peter. 1979. *Dependent Development*.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Koo, Hagen. 1984. "World System, Class, and State in Third World Development." *Sociological Perspectives* 27: 33-52.
- . 1987. "The Interplay of State, Social Class, and World System in East Asian Development: The Cases of South Korea and Taiwan." In Frederic C. Deyo(ed.).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New East Asian Industrialism*. pp. 165-81.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 Larkin, John A. 1982. "Philippines History Reconsidered: A Socioeconomic Perspective." *American Historical Review* 87: 595-628.
- Lyon, Eugene. 1990. "Track of the Manila Galleons." *National Geographic* 178(3): 5-37.
- Park, Seung Woo. 1998. "The State and Social Classes in Korea and the Philippines." *Thammasat Review* 3(1): 97-119.
- Parry, J. H. 1966. *The Spanish Seaborne Empire*.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Pelmoka, Juana Jimenez. 1996. *Pre-Spanish Philippines*. Caloocan City, Philippines: Philippine Graphic Arts.

- Pelzer, Karl J. 1945. *Pioneer Settlement in the Asiatic Tropics*. New York: American Geographical Society.
- Phelan, John Leddy. 1959. *The Hispanization of the Philippines: Spanish Aims and Filipino Responses, 1565-1700*. Madison: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 Roxborough, Ian. 1979. *Theories of Underdevelopment*. London: Macmillan.
- Schurz, William Lytle. 1959. *The Manila Galleon*. New York: E. P. Dutton.
- U.S. Philippine Commission. 1905. *Census of the Philippine Islands, 1903*. Vol. 4. Washington, DC: U.S. Office of the Census.
- Wallerstein, Immanuel. 1974. *The Modern World-System I: Capitalist Agriculture and the Origins of the European World-Economy in the Sixteenth Century*. San Diego, CA: Academic Press.
- . 1980. *The Modern World-System II: Mercantilism and the Consolidation of the European World-Economy, 1600-1750*. San Diego, CA: Academic Press.
- . 1989. *The Modern World-System III: The Second Era of Great Expansion of the Capitalist World-Economy, 1730-1848*. San Diego, CA: Academic Press.
- Wolters, Willem. 1984. *Politics, Patronage and Class Conflict in Central Luzon*. Quezon City: New Day Publishers.
- Yoshihara Kunio. 1988. *The Rise of Ersatz Capitalism in South-East Asia*. Quezon City: Ateneo de Manila University Press.

Abstract

The Formation of the Indigenous Ruling Class in the Philippines under Spanish Colonialism

Seung Woo Park

(Yongnam University)

In this paper I examine how local Filipino agrarian elites emerged and consolidated under the Spanish colonial regime and how they are shaped gradually into a solid local ruling class in the Philippines. Local class structure and class formation in a particular society cannot be fully explained without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external impact of world-system and the internal impact of the state. In this paper I propose that the processes of local class formation in the Philippines during the Spanish colonial period are largely shaped by the interaction between (1) external economic forces emanated from the Spanish world-system (from the mid-16th to the mid-18th century) and the Anglo-American world-system (from the mid-18th century onward), (2) the structure, composition, attitude and policy of the Spanish colonial state, and (3) socio-economic and structural remnants inherited from the previous local Filipino history. Each of these three sets of factors influences the others and is in turn influenced by them, and they in conjunction produce a socio-economic milieu where the seeds of the indigenous Filipino ruling class could germinate and grow.

Key words: Philippines, Filipino Ruling Class, Spanish Colonialism, Colonial State, World-System